

꿀을 찾은 벌과 꿀에 빠진 개미

나는 대한민국의 취업 준비생이다. 7월의 시작, 빠른 속도로 올라오는 채용공고에 오늘도 어김없이 키보드를 두드리고 있다.

‘공공기관에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직원이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직업 윤리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본인의 경험이나 가치관을 중심으로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 청렴의 인물 다산 정약용에게 빙의라도 된 듯 막힘없이 자기소개서를 써 내려 갔다.

“저는 공직자로서 ‘청렴’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총학생회에서 총무부 팀장으로서 정직한 회비 관리에..... 정직하고 깨끗한 공직자가 되고, A 기업을 대표하는 청렴한 직원이 되겠습니다.”

그때, 어머니의 부름이 들렸다.

“딸, 내일 중국에서 단체로 농장 체험 오기로 했어. 엄마 좀 도와줄래?”

“알겠어요. 노트북 정리하고 나갈게요!”

급하게 작성하던 글을 마무리하고, 서둘러 노트북을 정리했다.

다음 날이 되었고, 고요했던 농장은 여행객들의 웃음소리로 가득 찼다. 관광객들은 어머니를 따라 수확 체험을 하기 위해 농장 안으로 향했고, 그동안 나는 어머니를 도와 판매할 제품을 진열하고 있었다. 그때, 잠시 휴식을 취하고 있던 가이드가 나에게 말을 걸어왔다.

“제가 이거 팔아 주는 대신, 가격 두 배로 올려서 반반씩 나눠 가지실래요?”

그 순간 난 머리가 멍해지는 기분이었다. 그 달콤한 유혹에 잠깐이지만 강하게 동요하고 말았다. 끝내 옳지 못한 행동이란 양심의 가책에 그의 제안을 거절했다.

“아.... 제가 여기 사장이 아니라서 마음대로 결정할 수 없어요. 죄송합니다.”

“여기 온 사람들 중국 부자들이라 돈 많아요. 어차피 손해 보는 거 아니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가이드는 나에게 시답지 않은 농담을 던지며 다시 일을 하러 농장 안으로 사라졌다. 아마 그는 알고 있었을 것이다. 내가 농장 주인의 딸이고, 마음만 먹으면 자신의 제안을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었다는 것을. 나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짹짹한 기분에 사로잡혔지만, 이는 그리 오래가지 않았다. 가이드의 은밀한 제안은 시간이 흐르자 금방 잊혔고, 나의 일상은 평소와 다름없이 반복되었다.

그렇게 며칠의 시간이 흐른 뒤, A 기업으로부터 면접 제의를 받게 되었다. 떨리는 마음으로 면접장에 들어섰고, 세 명의 면접관들은 작성한 자기소개서를 기반으로 나에게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다.

“지원자는 청렴이 가장 중요한 직업 윤리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불합리한 상황을 보고 대처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이런 질문은 받은 나는 얼마 전 가이드의 은밀한 제안이 떠올랐고, 그때의 경험에 대해 답변했다.

“저는 농장 체험 안내에서 가이드로부터 받은 부당한 제안을 거절한 경험이 있습니다. 당시 가이드는 외국인을 상대로 판매 물품의 가격을 두 배 부풀려 받자는 제안을 했고, 이는 옳지 못한 행동이라 판단해 거절했습니다. 또한, 저는 당장의 이익에 눈이 멀기보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제안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관광객들이 농장에서 좋은 추억을 쌓으면 그 추억으로 형성된 긍정적인 이미지가 중국 관광객의 지속적인 방문과 한국 관광산업의 발전을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나의 답변이 끝난 직후 한 면접관이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추가 질문을 던지는 것이다.

“가이드라는 직업이 그런 부분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구조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지원자가 가이드의 밥줄을 끊은 것 아닌가요?”

이 질문에 나는 또다시 머리가 멍해지는 기분이 들었다. 나의 용기 있고 정직한 행동이 마치 잘못이라도 된 듯 반박하는 면접관에게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다. 또한, 이것이 한국의 현실이라는 것에 쓴웃음밖에 나지 않았다. 이러한 생각을 가진 사람은 면접관뿐만이 아니었다. 심지어 30년간 교직에 몸을 담으신 동네 아저씨도 “그거 얼마나 한다고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어?”라는 농담을 던지셨다. 많은 사람의 이 같은 반응에 난 멧쩍은 웃음을 지을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한참을 고뇌에 빠졌다. ‘이것이 과연 청렴한 세상인가? 나의 판단과 행동이 바보 같은 짓인 건가? 용납할 수 있는 범위의 횡령이 존재하는가?’ 한참을 나의 행동에 의문을 품게 되었다. 그렇게 나는 스스로를 ‘정의로운 척하는 겁쟁이’로 결론을 내려 버렸다. 그래야만 나의 마음이 진정되는 기분이었다.

다음 해, 작년에 왔던 가이드가 비슷한 시기에 관광객을 이끌고 다시 방문했다. 그리고 또다시 은밀한 제안을 해왔다. 잠깐 고민에 빠졌지만 결국 나는 가이드의 제안을 승낙했다. 나는 더 이상 ‘정의로운 척하는 겁쟁이’로 남고 싶지 않았다. 가이드의 도움으

로 상품은 불티나게 팔렸고, 초반에는 두둑해지는 돈주머니를 보고 기쁨을 느꼈다. 그러나 상품이 줄어가는 속도만큼 나의 양심의 가책은 커져만 갔다. 나는 차마 웃으며 돌아가는 관광객의 뒷모습을 볼 수 없었다. 이미 후회해도 소용없었다. 이런 나의 후회와 양심의 가책은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때마다 점점 커져만 갔다.

나에게 7월은 농장의 계절이기도 하지만 취업의 계절을 의미하기도 한다. 수많은 자기소개서 항목 중 '직업 윤리'에 대한 질문은 어렵지 않게 접하게 된다. 이를 작성할 때마다 스스로가 청렴한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믿어왔다. 그러나 그것은 엄청난 착각이었고, 면접관들에게 좋게 보이기 위한 가면이었을 뿐이었다. 커져만 가던 양심의 가책과는 달리 하루가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도 농장의 분위기는 평소와 다름없이 고요하기만 했다.

그러나 1년이 지난 뒤 사건이 터지고 말았다. 가이드의 부정행위가 적발되었고, 결국 우리 농장과 여행사의 관계도 끝이 나고 말았다.

나는 생각했다. 나의 모습이 마치 눈앞의 꿀을 보고 달려든 개미 같다고. 꿀은 달콤하지만, 달콤함에 취하는 순간 이미 다리는 꿀의 끈적끈적함 때문에 움직일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고작 당장의 8만 원을 더 벌자고 20만 원을 놓쳐버린 셈이다.

그리고 나는 생각했다. 작년의 나는 꿀을 찾은 벌이었고, 지금의 나는 꿀에 빠진 개미이다. 여태 스스로 꿀을 찾은 벌인 줄 알았지만, 그것은 꿀에 빠진 개미의 허상인 셈이다. 결국 현실은 비참한 최후만 있을 뿐이다. 또한, 나는 옥죄어 오는 꿀의 끈적임에 평생을 꿀단지 안에 갇혀 살아야 한다. 그것이 바로 양심의 가책이다. 앞으로 나는 중국과 관련된 모든 것을 볼 때마다 나의 어리석은 행동이 생각날 것이고, 평생을 뉘우치며 살아야 한다.

지금부터라도 잘못을 바로잡고 '청렴'을 실천하며 다리에 붙은 꿀을 씻어낼 것이다. 언젠가 '청렴'의 날개를 달고 개미가 아닌 벌로 다시 태어날 것이다.

꿀을 찾은 벌의 끝은 찬란하며, 꿀에 빠진 개미의 끝은 비참하다.